

## 백신·면역·천연물 신약 연구 개발 인프라 완비

전남, 첨단 바이오 산업 세계적 거점으로 키우자

### 〈상〉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전남도가 바이오 산업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첨단 바이오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다.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전남형' 첨단 의료복합단지로 한 단계 격상시켜 백신, 면역치료제, 천연물신약 등을 연구개발, 기능·약효 검증, 임상 및 인증, 관련 기업 기술 지원·생산 등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광주일보는 첨단바이오산업의 현주소, 첨단 의료복합단지 지정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전남도가 각종 백신과 면역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천연물 신약 등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전남 생물약 연구센터를 시작으로 18년간 연구개발기관, 대학병원, 관련 대기업 등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한 전남도는 이들 기관·병원·기업 등이 조만간 융복합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여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합성제로 주목받고 있는 고가의 외국 면역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는 면역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한다. 기술집약적 산업분야로, 매년 기술 융복합을 통한 고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규모도 2016년 8.6조 달러에서 2025년 14.4조 달러로 연평균 6%씩 급성장할 것이라고 있다. 이러한 산업동향을 일찍부터 눈여겨 보던 전남도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늘려왔다.

전남도는 지난 2003년 생물약품 생산 및 연구 개발을 위해 전남 생물약연구센터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화순전남대병원 개원(2004년), GC 녹십자 화순공장 유치(2009년) 등에 성공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마련한 바 있다. 2010년에는 화순생물약산업단지 일대 94만㎡를 화순백신산업특구로 지정받으면서 '고도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후 정부 공모사업에서 잇따라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 연구, 생산 및 기업지원시설들을 하나둘 갖춰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미생물 실증지원센터(사업비 836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283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지식산업센터(32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연구개발은 '전남대 의과대학', '전남대 의생명 융합센터'가 담당하고, 백신 위탁생산은 '전남 생물약연구센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전입상기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임상·화순전남대병원, 기업 지원은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가 맡게 된다.

백신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허가, 기업 지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화순백신산업특구를 갖추게 된 것이다.

여기에 '면역치료제' 등을 필두로 하는 차세대 치료백신산업 분야도 준비하고 있다. 면역치료산업은 화순백신산업특구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460억원)을 유치하였고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플랫폼 구축사업(200억원), ▲첨단 바이오의약품 사업화지원 역량강화사업(30억원)에도 도비를 추가 투자하고 있다. 전남도는 한 번 치료에 수천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외국산 면역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 면역치료제가 화순백신산업 특구에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 '한반도 데탕트' 물거품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6일 "조선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이 하계 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기점으로 남북미일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 데탕트'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물거품이 돼버렸다. 북한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이 표면적인 불참 사유지만, 대립상황이 지속 중인 북일 관계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물안개·산벚꽃 어우러진 세량지의 봄

6일 물안개와 산벚꽃이 어우러져 사진 동호인들의 출사지로 유명한 화순 세량지에 탐방객들이 산책하며 산벚꽃을 감상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동호회원들의 단체 출사를 제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경도에 '여수판 엘시티' 짓나

〈생활형 숙박시설〉

미래에셋 컨소시엄, 설계 변경 마린나 시설 계획 백지화 하고 타워형 레지던스 조성 9월 분양 부동산 사업 속도·관광시설 뒷전



여수 경도 타워형 레지던스 조감도. <전남도 제공>

여수 경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컨소시엄(이하 미래에셋) 측이 당초 계획했던 마린나 시설을 백지화하고 대신 최고 29층짜리 타워형 레지던스를 조성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미 사업안변경 승인까지 받고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미래에셋 측이 국비·지방비를 투입해 연륙교 설치가 결정된 뒤 당초 약속한 관광시설은 취소하거나 소극적인 반면 주거시설을 분양해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할청인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 등이 사업 변경 타당성을 검증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사업자 측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측은 지난 3월 경도해양관광단지 숙박시설 1단계(타워형 레지던스) 사업에 대해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해당 사업안 심의는 이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미래에셋측은 전남도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도교육청), 건축허가(광양만경제청), 구조안전심사(전남도)를 받아 올 6

~7월 사업 착공, 9~10월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도 내 초등학교도 인근으로 옮겨 설치하고 해당 부지에 6성급 특급 호텔 착공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6만5000㎡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타워형 레지던스 1184실(11개동)을 짓겠다는 것이다. 47평(155㎡)부터 최대 85평(280㎡)형 규모로, 여수 내륙 국동항과 연결하는 연륙교의 경도 진입부 주변이 예정부지다. 접근성과 조망권이 뛰어나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당초 마린나시설 예정부지에 타워형 레지던스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광양만경제청이 지난해 10월 경도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해줬기 때문이다. 여수시의 일부 의원들은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에셋측은 또 경도초교를 인근으로 이설하고, 오는 2022년까지 6성급 호텔 착공에 나선다는 세부 계획도 세웠다.

또 당초 제출한 투자 계획서에 명시된 '런던아이'와 같은 대관람차를 폐지했으며, 돌산과 경도를 잇는 케이블카 조성 여부도 불분명한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수시의 송하진 의원(무소속)은 최근 시정 질문에서 "1조2000억원이 투입돼 대대적 개발이 추진 중인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래에셋이 경도에 투자하는 목적이 결국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과 부동산 개발 이익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최부경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더민주·여수4) 역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경도 사업 착공식에서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정작 돈 되는 숙박시설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주민들의 비판 여론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광양만경제청 측은 "미래에셋측이 사업성 등 사업 전반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광주수돗물

# 빛어울수

참!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원**

맑고 깨끗한 섬진강 수계인 동복호와 주암호의 청정 원수를 가져옵니다.

**엄격한 수질검사를 통과한 명품 수돗물**

먹는물 수질 법정기준의 4배 이상 항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똑똑하고 안전한 수돗물**

최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수돗물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안내**

고지서 분실 걱정 없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요금할인도 받으세요!

Q. 수도요금 전자고지란?   요금고지서를 카카오톡, 핸드폰 문자, 전자우편으로 받는 서비스

Q. 요금할인제도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 후 종이고지서를 미수령하는 수용가에 부과요금의 1% 할인(200~5,000원)

Q. 서비스 신청방법은?   전 화 : 관할 지역사업소 신청  
인터넷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신청(water.gwangju.go.kr)

**문의사항 안내 062-121**

- 동부사업소 062) 609-6500
- 서부사업소 062) 609-6600
- 남부사업소 062) 609-6700
- 북부사업소 062) 609-6800
- 광산사업소 062) 609-6900

**2021년 "라벨없는" 친환경 빛어울수 생산**

오직 깨끗한 물! 오롯이 광주시민에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